

김준태 시인 시집 '물거미의 노래' 독일어 번역 현지 출간



“과거 잊지 않되 미래 만들어가는 시 쓰고 싶어”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독일에서 제 시집이 발간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평화와 생명 사상 등을 함께 공유하고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로 오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김준태 시인. 당시 전남 교사였던 그는 이 시로 광주 5월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한다.

최근 김준태 시인의 6개 작품집에서 대표작을 골라 묶은 시집 '물거미의 노래'가 독일 현지에서 독일어와 한국어로 발간돼 '화제'다. 작품집에는 모두 60편이 수록됐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시인은 여전히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큰 키와 서글서글한 인상 덕분에 어디서든 금방 눈에 띈다. 금남로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시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는 금남로를 자주 출입한다. ‘금남로 시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은 거의 매일 전일빌딩245로 출근해 전라도서실에서 글을 써왔기 때문이다.

여전히 건강해 보인다는 말에 시인은 “하마터면 박 기자를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두세 달 전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며 웃었다.

평소 매일 자전거를 타며 건강관리를 한다는 시인은도 물리적인 나이 앞에서는 조금씩 쇠약해져는 듯했다. 약수가 끝나기 무섭게 시인은 독일어로 된 양장본 시집을 건넸다. 이국풍의 디자인과 두툼한 부피는 여느 시집과는 다른 아우라를 발했다.

시인은 “이번 시집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전액 번역출판 지원사업으로 출간됐다”며 “작품집에는 광주항쟁과 민주화운동 외에도 통일, 생명사상 등을 모티브로 쓴 시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6권 시집서 대표작 60편 수록 독일 보림대 양한주 교수·시인 위르겐 반세루스 참여

번역에는 독일 보림대에 재직 중인 양한주 교수와 시인 위르겐 반세루스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출판은 독일 현지 'IUDICIUM 뎀'이 맡았다.

번역을 한 양한주 교수는 지난 80년대부터 독일에서 거주했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어와 사회학을 공부했다. 보림대 한국언어문화부에서 번역 및 편집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1년 김영하의 소설 '슈바르츠 블루메'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는 번역상을 하이너 펠트호프와 함께 수상했다.

공동 번역자인 위르겐 반세루스는 뮌스터 대학과 본 대학에서 인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 지난 2010년 아네테 폰 드로스테 뮌스터상을 받았다.

이번 시집은 제목부터 인상적이다. 표제지 '물거미의 노래'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을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노래한 작품이다.

“남과 북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DMZ 늪// 목마른 노루새끼들/ 종종 주둥이로 스쳐 가는/ 지뢰밭 물구덩이 안에서/ 거미 두 마리가 엉겨 붙는다// 반경 2cm가 될까 말까 한/ 물방울 속을 비집고 들어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암늪과 수능/ 사랑을 한다/ 작은 수초(水草) 하나/ 다치지 않고, 찢김도 없이// 아흐./ 둥근 물방울 속에/ 들어가 몸을 쉬는다/ 단순한, 소박한, 완벽한, 꿈꾸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잔잔하게 풀어낸 시는 숨이 막히도록 간결하면서도 미려하다. 낙천적 세계관은 물론 얼핏 사마니즘적인 에너지도 깃들어 있다. 물거미는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서식하는 생명체다. 아이러니하게도 물거미는 6·25전쟁의 최

전선인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산다. 상처 입은 우리의 산하는 그렇게 무정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거였다.

시인은 “무수히 많은 지뢰가 묻힌 DMZ비무장지대가 세월이 흘러 자연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가 됐다니, ‘시적이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물거미의 짝짓기는 밤과 북의 경계가 없는 자연의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담은 시적 묘사”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평화와 생명력의 회복, 그리고 통일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인의 시집은 그 이전에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다. 지난 2014년에는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가 영문으로 영역돼 출간됐으며 2018년에는 ‘광주로 가는 길’이 일본어로 나왔다.

올해로 등단 55주년을 맞는 시인은 여전히 왕성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괴담은 죽기 전까지 글을 썼고 피카소는 92세까지 작품활동을 했다”며 살아 있는 한 계속 글쓰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시를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한주 교수는 감사의 말에서 “당신의 입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구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일부 시에도 적용된다”며 “이 시를 번역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때 행복하다”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지은 작 '일월오봉도'

‘한지에 고운 빛’ 민화 회원전, 벽사·길상·문자도 등 7월 5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기은숙 작 '책가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유의 종이를 한지라 한다. 변색에 강하며 은은한 멋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다.

전통 채색화(민화) 회원들이 ‘한지에 고운 빛’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대 평생교육원 회원과 서화 이경자 작가의 갤러리 회원 20명.

오는 7월 5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우리의 다양한 전통 채색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장에서는 나뉜 기운을 밀어내는 벽사를 비롯해 복을 안겨준다는 길상, 교훈이 담긴 문자도, 역사적 순간을 포착한 기록물 등을 만날 수 있다. 회원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오늘의 일상에서 비껴서서 한 번쯤 옛것 우리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유를 선사한다.

김지은의 '일월오봉도'는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풍경을 집약한 작품이다. 제목이 말해주듯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와 숲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

은 정겹다. 형태를 단순화한 구도에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깊이감이 느껴지는 풍경은 우리 선조들이 상상했을 이상향의 아우라를 발한다.

기은숙 작가의 '책가도'는 선비들의 책장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책장에는 책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도자기와 기물 등 다양한 조형물이 놓여 있다. 푸르스름한 빛의 '책가도'가 환기하는 것은 그윽함과 안정감이다. 장마철 푸른 빛이 발하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무더위가 저만큼 물러날 것 같다.

이경자 작가는 “우리의 문화인 민화를 통해 힐링과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한다”며 “한편으로 전시는 우리의 그림에 대한 재발견의 성격도 지닌다”고 전했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민화는 탕화, 불화 등과 함께 우리 고유의 예술 장르다”라며 “현대적 감각의 민화 기법을 융합한다면 K컬처 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마이 신지 감독 '태풍 클럽' 보고 씨네토크 나눠요

광주독립영화관, 7월3일 상영회



영화 '태풍 클럽' 스태프.

소마이 신지 감독의 1984년작 '태풍 클럽'은 개봉 이후 “고독하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의 필름에는 언제 영화를 붓고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홍포한 자력'이 장전돼 있다”는 미학적 평가를 받으면서 영화 평단의 주목을 받아 왔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이 “태풍클럽”은 지금 봐도 새로울까? 행사를 7월 3일 오후 6시에 연다. 상영회를 진행한 뒤 김보년 프로그래머(서울아트시네마)와 함께하는 씨네 토크 행사 시간도 마련된다.

‘태풍 클럽’은 1985년 제1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대상(영 시네마 컴퓨터션 도쿄 그랑프리스상)을 비롯해 제10회 호치영화상 남우조연상, 제7회 요코하마 영화제 2등상·감독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상영은 한국에서 4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태풍이 불어 닥친 날, 미카미 교이치를 비롯한 6명의 중학생이 학교에 갇힌다. 교이치의 절친 리에는 등교하던 중 출연 방향을 바꿔 도쿄로 향한다

다. 오갈 곳 없는 학생들이 고립된 공간에서 '결핍', '욕망', '불안', '패라'이 뒤섞인 축제를 펼친다는 시놉시스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보년 프로그래머와 함께하는 씨네 토크도 예정돼 있다.

영화비평과 창작 활동의 한 축이 됐던 '씨네 클럽'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1930년대 일본 영화비평계에 족적을 남긴 '하스미 시게이코'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김 프로그래머는 대구 단편영화제 심사위원 등을 맡아 왔다.

한재섭 관장은 “태풍 클럽”은 “왜 일본영화는 꾸준히 사랑받는가”라는 의문에 하나의 해답이 되는 영화”라며 “자신만의 영화를 촬영하고 싶은 분, 시네클럽을 운영하고 싶은 분 등이 오셔서 영화적 자극을 받고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예매 문의 영화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합창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인류 평화의 염원을 담아

광주예술의전당, 국립합창단 초청 7월2일 기획공연

우리, 이팔 정쟁 등 국제전은 지구촌 평화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기획 공연 포시즌 일환으로 국립합창단(예술감독 민인기)을 초청해 인류 평화의 염원을 담은 공연을 펼친다. 오는 7월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평화'를 주제로 쓴 젠킨스 곡들이 울려 퍼진다.

1796년 완성한 하이든 곡 '전시 미사'로 막을 연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에 이어 이탈리아를 침범하자,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전시 미사는 하이든 후기에 완성된 6곡 미사의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 팀파니 독주로 인해 '파우젠 미사'로도 불린다. 평화에 대한 염원, 공포 등이 악곡에 녹아있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울려 퍼진다. 영국의 현대 클래식 작곡가 칼 젠킨스가 작곡한 노

래로, 무력분쟁 중에 목숨을 잃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헌정한 작품이다.

가사에는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을 인용했다. '파파레', '평화, 평화!'를 비롯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위한 애가', '에스트리드 메이를 위한 노래', '비둘기' 등으로 구성됐다.

지휘는 민인기가 맡았으며 소프라노 박소영, 류정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김세일(테너), 베이스 바리톤(사무엘 윤)이 출연한다. 리프즈플레이어즈 그룹이 협연할 예정이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50년간 합창음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 온 국립합창단 초청 공연을 준비했다”며 “올해 1월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민인기 지휘자의 예술적 비전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선임

합창단 임창은·극단 원광연·오페라단 최철

광주시립예술단의 비전을 수립하고 단체를 이끄는 지휘자·예술감독이 선임됐다.

광주시는 24일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및 시립극단·오페라단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 명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23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단원 지휘·감독은 물론 예술단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행정업무 전반 등을 맡게 된다.

지휘자 임창은은 북텍사스주립대 음악대학원 합창 지휘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대전시향 부지휘자, 춘천시립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서울마스터즈코어, 사랑의교회 영광찬양대 지휘자 등을 거쳤다.

시립극단 신입감독에 선임된 원광연 극작가는

2006년 극단 아트퍼니니원을 창단해 2019년까지 60여편 작품을 연출했다. 제12~13대 한국연극협회광주시지회 지회장을 역임했다. 2016년 광주연극제 연출상 및 최우수작품상, 2022년 한국예총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신임 최철 오페라단은 예술감독은 조선대 음악학과(성악 전공) 석사과정, 이탈리아 마스카니 국립음악원 등을 졸업했다. 이탈리아 로마네스코 오페라단을 연출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광주문화재단 이사 등을



임창은



원광연



최철

역임했다.

한편 광주예술의전당 윤영문 전당장은 “그동안 공식적이던 시립예술단의 수장으로 선임된 지휘자, 예술감독이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당은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